업계 1위 부산저축銀 PF가 발목

예금지급 불능상태 6개월간 영업정지

"광주·전남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양호"

업계 자산순위 1위인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의 저축은행 2곳이 영업정지되면서 업계와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한달여 만이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는 1인당 원리금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PF가 발목' 업계 1위마저 퇴출=금융위원회는 17일 임시회의를 열어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전저축은행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인한 유동성 부족 때문에 더 이상의 예금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 전날 영업정지를 신청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회사인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계기로 예금인출이 확산될 경우 더 이상의 예금지급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대전저축은행은 이미 예금지급 불능상황에 이르렀고, 부산저축은행은 단기간 내에 예금지급 불능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됐다"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예금자의 권익과 신용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실태 파악을 위한 검사에 착수하는 한편 계열사인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연계검사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부산저축은행은 조속한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6개월 내 경영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양호 '안전'=업계의 퇴출 공포가 확산되자 금융위원회는 이날 "삼화저축은행을 제외한 104개 저축은행 중 94개 저축은행은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업무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과도한 예금인출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추가로 부과할 곳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94개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 기준인 5%를 초과하는 상태다.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사를 제외하고 BIS 비율이 5%에 못미치는 곳은 보해, 도민, 우리, 새누리, 예쓰 등 5개 저축은행이다.

다만 보해저축은행은 지난 8일 320억원의 대주주 증자를 실시한데 이어 추가로 외부자본 유치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나머지 광주·전남지역 저축은행들의 경우 자산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해 안전하다는 진단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부실화에 따른 영업정지는 일부저축은행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상영업중인 저축은행과 거래중인 예금자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는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예금자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 부산저축은행은 어떤 곳?

오너 박상구씨, 금호 박인천 창업주 장조카

부실 저축은행 잇단 M&A 5개사로 늘려

영업 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은 범금호가(家)에 속한다. 오너는 박상구 전 회장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장조카이며, 박삼구 그룹 회장과는 사촌형제다.

박 전 회장은 금호그룹의 모기업인 광주여객 설립 멤버고, 삼양타이어(현 금호타이어)·금호실업 등에서 창업주와 함께 일하다 1981년 금호를 떠나 금융업으로 눈을 돌렸다. 부산저축은행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82년 5월 경영권을 넘겨받으면서다.

이후 잇단 부실저축은행 인수로 규모를 키워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 등 4개 비상장 계열사를 거느린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 성장했다. 그룹은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해 왔으며, 자산 규모가 총 10조원에 육박하는 자산 기준 업계 1위다. 이 중 부산저축은행이 3조7435억원, 대전저축은행이 1조5833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지나치게 늘린 게 화근이 되고 말았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대출자산 가운데 PF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여서 'PF 왕국'으로 불려왔다.

부산저축은행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이날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모기업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PF 대출 잔액이 2조3568억원으로 전체 대출 잔액 3조2814억원의 71.8%를 차지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지자 PF 대출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2009년 6월 말 0.37%에서 지난해 말 7.18%로 높아지고, 1개월 초과 연체율이 같은 기간 0.83%에서 35.14%로 급등하는 등 PF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진 것이다.

그러면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부산저축은행은 10.11%에서 5.13%로 낮아지고 대전저축은행은 5.46%에서 -3.18%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은행의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결국 영업 정지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올 농축산물 판매 3조 달성"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 신규 전입직원 30여명은 17일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돌미나리공선회 출하현장에서 돌미나리 수확·포장·수송 작업을 하며 올해 농축산물 판매 목표 3조원 달성을 다짐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14개그룹 상반기 1만2100명 채용

지난해보다12.4% 늘어…삼성·LG 가장 많아

올해 상반기 주요 그룹사들의 채용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 14개 그룹 1만21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매출액 기준 상위 30개 그룹사를 대상으로 '2011년 상반기 채용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그룹사가 올해 상반기 채용 여부를 확정했으며 예상 규모는 1만210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들 14개 그룹사가 지난해 상반기 채용한 1만768명보다 12.4% 증가한 수치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그룹사들이 채용을 진행할 경우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잡코리아 측은 전했다.

기업별로는 삼성과 LG가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그룹은 올 한해 대졸 신입사원 9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지난해 1만5000명을 채용한 LG그룹은 올해 대졸신입·경력직·기능직 등 총 1만7000명을 연중 수시로 채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상반기 420여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한 한화그룹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는 그보다 20% 가량 늘어난 540여명을 채용하고, 지난해 상반기 100여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한 대림그룹은 두 배인 2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총 2400명을 신규고용한 GS그룹 역시 올해 고용규모를 늘려 2800명의 신입·경력 사원을 채용하기로 했으며, CJ그룹도 대졸 신입사원 채용규모를 지난해 580명에서 올해 900여명으로 크게 늘렸다.

현대그룹과 두산그룹의 경우 상반기에 각각 197명과 3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새얼굴

"지역 서비스무역 활성화 전력"

백 재 선 무역협회광주·전남본부장

"제조업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특성에 맞는 문화·관광 콘텐츠 등 서비스무역 활성화에도 전력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백재선(51)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하우징자재·식품산업·광산업 분야의 수출산업화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무역기금 지원 및 컨설팅·마케팅 등 현장 밀착형 서비스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지역 물류 개선을 위한 물류실무위원회를 구성, 물류비 절감 및 효율화를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백 신임 본부장은 해남 출신으로 서울 서라벌고와 서강대 경제학과, 네덜란드 해상운송대학(STC) 국제해상운송아카데미(IMTA)를 졸업했다. 일간무역기자를 거쳐 한국무역협회 한국하주협의회 하주사무국장·국제물류지원단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jw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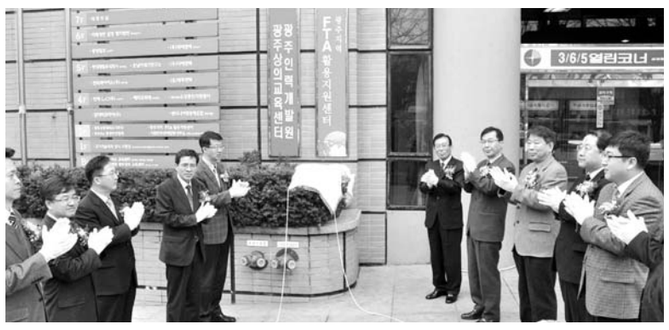
정범식 호남석화 대표 석유화학공업협회장에

정범식(62) 호남석유화학 대표가 17일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제16대 회장에 취임했다.

정 신임 회장은 이날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정기총회에서 "한국석유화학공업의 건실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며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규제와 통상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동반성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 신임 회장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으며 현대석유화학 대표, 롯데대산유화 대표 등을 지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지역 FTA활용지원센터' 오픈

광주상의-광주시 공동 … 기업 수출 지원 등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17일 광주상의 사무국에 '광주지역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센터' 문을 열었다.〈사진〉

이 센터는 앞으로 FTA 활용 관련 정보 제공과 기업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원산지 증명 발급 및 온-오프라인 상담, 시장진출 전략, 수출 애로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업종별·협정별 설명회 및 실무자 교육, 원산지 관리사 자격 취득 지원을 통한 FTA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지역 기업의 FTA에 대한 인식 확대와 인프라 확충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FTA 종합지원 포털을 구축해 FTA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062-350-5888, 5865.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상

2011년2월4일 SBS 주관

전국동안대회 대상

2011년2월24일 SBS 좋은아침 방송

이계남 신비 건강 재활원

심근경색 · 파킨슨병
잠수병 · 혈관질환 · 허약체질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운동요법만으로
본인도 놀랄만큼 단 시일내 치유됨!!

062)951-5511 · 016-9578-7777

정품! 정량!! 난방유

SK삼보주유소

SK

마일리지카드 발행
(인적사항 기재 없음)

명품 외부 세차! 깔끔 내부 세차!

[차량 무료점검 서비스 시행
Speed Mate와 업무제휴]

난방유 할인판매

내부세차 합니다

▶ OK로고 있는 전 카드 할인혜택
▶ 한드럼당 4천원~6천원 할인
▶ OK캐쉬백적립

산수오거리에서
지산(법원) 큰사거리 지나 200m우측
062-224-5189
011-666-7899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용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04-중-4738호